

# 나주시, 역사·전통에 체험·키즈 콘텐츠 더했다

## 내달 15~17일 금성관 일원서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스탬프투어·한복 체험·읍성 소리놀이 등 프로그램 강화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통과 체험, 가족형 콘텐츠를 결합한 '제6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성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전통문화 체험과 키즈 콘텐츠 강화 등 지역 대표 역사 문화축제로 위상을 강화한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천년나주목읍성 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나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흥미진진(興美津津)'을 주제로, 흥과 멋, 맛,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나주만의 전통문화 축제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장엄한 전통문화 재현 행사

와 더불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추가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할 전망이다. 개막일인 15일에는 '전통의상 한복 쇼'와 '읍성 소리놀이', '안성남사당놀이 공연' 등이 진행되며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이어 주말인 16일과 17일에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오위진법 사열, 전통 무예 시연으로 구성된 '나주성(城)에 서다', 동부·서부 줄다리기, 공존공생 페스타(주민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무대 뒤편 잔디광장에 '키즈 관광 특화 콘텐츠'를 새롭게 조성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토존과 신어룡 공연 등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시전 거리를 재현하고 전통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이 읍성 골목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의 재미와 나주의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읍성 특별 스탬프 투어'도 운영

한다. 읍성 한 바퀴를 돌며 주요 명소를 순회해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과 인력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금성관과 읍성이 살아 숨 쉬는 나주만의 역사 문화 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천년의 시간이 머문 나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문화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순천, 청년 관광 큐레이터 모집 내달 1일까지...기획자 15명 양성

순천시는 5월 1일까지 관광자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콘텐츠로 연결할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순천 관광 큐레이터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년이 직접 지역 관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참여형 관광 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순천의 생태·정태·치유 자원을 기반으로, 청년의 감각을 더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관광 콘텐츠 기획과 로컬 자원 기반 관광상품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15명 내외의 큐레이터는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선발된 큐레이터는 관광 전문가 멘토링, 순천 관광 콘텐츠 기획, 로컬 자원 상 품화, 온·오프라인 홍보 참여 등 실무 중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팀 프로젝트를 통해 치유관광, 미식,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천형 관광상품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시간에 따른 활동비 지급은 물론, 관광지 무료 방문,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우수 활동자는 향후 순천시 관광 행사와 축제 인력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로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관광과(061-749-579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9pk@

## 함평 농기계임대사업소 3곳

### 6월 13일까지 비상근무 돌입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점, 동부점, 서부점)가 오는 6월 13일까지 비상근무에 나선다.

이번 비상근무는 모내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 수확 등 일손이 집중되는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돕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은 비상근무 기간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농업인들의 일정을 고려해 평일에는 1시간 조기 출근하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실시한다.

이 기간 직원들은 임대 농기계의 신속한 출·입고를 돕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만큼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계화 영농을 적극 지원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진도군이 최근 고군면 화동리 일원과 진도읍 칠마공원에서 '제4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개최, 약 9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제공=진도군청

## '자연의 경이로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성황

### 관광객 9만여명 방문...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진도군이 최근 고군면 화동리 일원과 진도읍 칠마공원에서 '제4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개최, 약 9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과 문화 행사가 어우러지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축제의 핵심인 바닷길 체험 행사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참여해, 회동과 모도를 잇는 바닷길을 직접 걸으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했다.

군은 현장 곳곳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축제 운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새롭게 진행된 뽕할머니 소망 행렬(퍼레이드), 바다의 기적 '골든벨을 울려라', 1km 해안도로에서 진행된 체험형 행사인 '미라클 로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진도8미 쿠키쇼와 베이킹쇼', '진도라면 팝업' 등의 다채롭고 새로운 축제 구성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특산물 판매와 향토음식점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진도읍 칠마공원에서 3일간 연계 행사로 진행된 '미라클 콘서트'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렸고, 이는 숙박, 음식, 교통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소비 확대에 이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축제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고, 관광자원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의 세계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곡성, 청년도전지원사업 순항

### 미래교육재단 등과 연계방안 모색

곡성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전하는 홍보로 순항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와 아파트 단지 등 지역 곳곳에서는 구직 과정에 지원 청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판매다협동조합 등 유관기관들도

단순 협조를 넘어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며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은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단과 협력하고 있다. 오곡면과 곡성을 이장회의에 참석해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 일하직(JOB)센터, 곡성군 청년센터, 곡성동네친구들 등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총 16명의 청년이 참여를 신청하며, 사업은 순조로 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24'를 통해 신청한 34세 이하 구직단념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특화청년' 제도를 통해 12명이 추가 참여하면서 맞춤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월부터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예니어그램, 비폭력 대화, 표현 예술 등을 활용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비롯해 알렉산더 테크닉, 공간 정리, 재무관리 등 실생활 자립을 돕는 '사레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준비가 시너지를 내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된 성동네친구들 등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곡성군 일하직(JOB)센터가 전남과학대학교를 찾아 청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 강진, 고유가 시름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지원

### 내달 6일부터 읍·면 접수...개소당 10만원 지역상품권

강진군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요금(에너지)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유가 및 에너지 비용 등 고정부 상승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매출 기준(1억4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어렵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 내에서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상인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chak)'으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되므로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소비해야 한다.

신청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2025년 매출액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만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영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강진군청 홈페이지-소상공인지원센터' 코너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신청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며, 최종 접수는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고물가·고유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지원이 강진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 담양, 지역공동체 상생의 장 '어울림장터' 연다

### 6월까지 4회 운영...지역 생산품 판로 확대 등 기대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 공동체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6년 어울림장터'를 오는 6월까지 총 4회 운영한다.

'어울림장터'는 담양 풀뿌리공동체와 농촌인재양성과정을 통해 육성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소규모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판매·체험형 장터로, 지역 생산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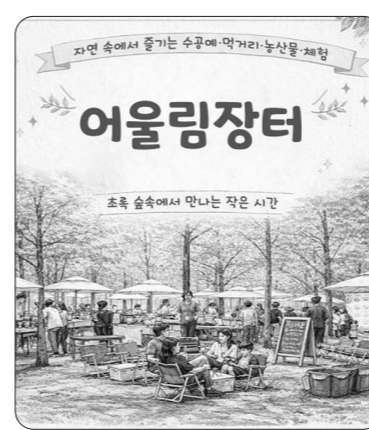
올해 장터는 죽녹원 맞은편 영산강 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9개소의 판매자가 참여해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공업

품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센터는 장터 운영에 앞서 참여자 모집과 기획 회의, 홍보물 제작 등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와 임시 판매 허가증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해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센터는 장터 운영 이후 성과 공유와 평가회를 열어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는 "어울



림장터는 지역 공동체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토대"라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담양형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우 기자 iss270@gwangnam.co.kr